

美 록히드社, 전투기사업 인수...변신 본격화

美 록히드사가 최근 방산관련 산업을 새로 인수하는 등 옛 榮華를 되찾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비행기정비, 핵폐기물 정화 등과 같은 비군사부문에 더이상 집중하지 않는 대신, 방위산업부문에 힘을 기울여 군수산업에서 미국 최대계약자가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록히드사가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의 전투기사업부를 15억불에 인수한 것은 록히드사가 미국 최대 군수부문 계약자가 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록히드사는 방위산업 부문에서 맥도넬더글라스, 마틴마리에타사에 이어 3위에 랭크된다.

록히드사는 올해 이익액이 10% 늘어 3억8천5백만불, 매출액은 30% 증가된 1백30억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GD사의 전투기사업부문 인수는 이런 경영활성화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록히드사의 GD전투기사업부문 인수는 록히드가 번창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GD의 전투기사업부가 세계 각국의 6백개 회사들로부터 평균 2천2백만불 규모의 주문을 받아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거의 10년간의 주문잔액에 해당하는데, 이 주문의 3분의 2는 한국, 대만, 터키 등과 같은 나라의 해외수출용이다.

록히드사의 최대 강점은 역시 하이테크 방위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록히드사가 美 최대 방위산업 분야 계약자가 되는데는 장애가 여전히 많다.

록히드사가 집중하고 있는 대규모 비용이 드는 무기의 상당수는 앞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방위비 삭감시대를 맞아 전혀 생산되지 않을 지도 모르는등 불투명한 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 방위산업 구매계획에서 한 개의 구매 계획이 취소되더라도 록히드사에는 치명적 타격을 미칠수 있다』고 조지타운대학의 로렌 톰슨씨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시점에서 록히드의 텔러회장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GD사의 포트워스 공장을 록히드사의 항공기 사업부문에 어떻게 조화롭게 합병시켜 끌고 나가느냐의 문제이다. 특히 새로 인수한 사업부의 인원은 거의 3만명에 육박해 이에 대한 인원삭감도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록히드사의 가장 큰 걱정은 워싱턴의 예산삭감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많은 방위프로젝트들이 과연 순조롭게 실행돼 정말 돈벌이가 될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텔러회장은 방위산업이 현재의 합리화과정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에는 유망한 비즈니스가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 록히드사가 정말 美 최대의 방위산업 계약자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美 록히드 항공기의 新·旧世代(최신에 기종인 F-117 스텔스기와 제2차 세계대전의 총아 P-38)



북한, 신형 유도탄 「로동1호」 개발一年內 실전배치

- 사정거리 1천km ... 東北亞 안보 “태풍의 눈”

일본 방위청이 지난 4월 30일 북한이 개발중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로동 1호」가 年内에라도 실전배치될 전망임을 밝힌데 이어, 5월 8일에는 美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이 「로동 1호」로 명명한 사정거리 1천km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란 군사대표단이 1차로 이 미사일 1백50기를 구매하기 위해 최근 북한에 1개월간 체류했음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로동1호」가 북한에 배치되면, 동경-블라디보스톡-상해까지 위협을 받게 되고, 이란 서부에서 발사될 경우, 이스라엘은 물론 카이로-터키-사우디아라비아의 대부분이 공격권에 들어오게돼 아시아와 중동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요소가 된다.

이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일본과 이스라엘 등이 사정권 안에 놓여, 아시아와 중동의 인접국에 위협을 줄뿐아니라 북한과 이란이 종전에 비해 2배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다.

미국은 「로동1호」가 북한과 이란이 공동 생산중인 화학무기와 핵무기도 탑재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로동1호」 미사일 관련장비들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됐던 북한 화물선 대흥호가 작년 3월 美해군함정의 경비망을 피해 이란 반다르아바스항에 입항했을때, 이미 이란이 북



한에서 이 미사일을 구입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었다.

「로동1호」는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사용한 旧소련제의 핵 및 非核 양용 전술미사일 「스커드」의 기술을 기본으로 북한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로서, 작년부터 2, 3년내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았으며, 작년 6월 東海에서 발사실험에 실패한이래, 실험성공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체결된 북한-이란 군사비밀협정으로, 이란은 3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란에서 실험을 행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만, 아르헨티나와 1백억불 무기구입 협상

대만 정부가 아르헨티나로부터 잠수함, 군함, 항공기, 전차 등 1백억불(8조원) 상당의 각종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아르헨티나의 유력 일간지인 클라린紙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만정부가 미국의 전속무기중개상을 내세워 아르헨티나에서 잠수함 10척과 군함 6척, 군용항공기 50대, 그리고 다수의 전

차와 관련군수물자 등 1백억불 규모의 무기를 사들이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정부는 직접 이같은 무기를 구입하는 외에 현재 아르헨티나 국방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함조선소를 비롯한 각종 무기생산시설의 민영화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